

#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grams

황금숙(Gum-Sook Hoang)\*\* · 서우석(Woo-Seok Seo)\*\*\*  
백원근(Wuen-Keun Back)\*\*\*\* · 이연옥(Yoen-Ok Lee)\*\*\*\*\*  
김은실(Eun-Sil Kim)\*\*\*\*\*

### <목 차>

- |                  |                          |
|------------------|--------------------------|
| I. 서론            | 2. 평가 목적과 방법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단위사업별 평가 결과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IV.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체계 및 개선방안 |
| II. 독서문화진흥사업 현황  | 1.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체계         |
| III.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 | 2. 독서문화진흥사업 개선방안         |
| 1. 평가모델 개발       | V. 결론                    |

### 초 록

2006년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제1차,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이 수립되는 등 국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심층적이며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독서진흥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독서진흥정책, 독서정책, 독서진흥법, 독서진흥사업, 독서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평가, 정책평가

### ABSTRACT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6. National policies for promoting reading culture such as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 (2014–2018)” were established and are being implemented.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the system which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ies and programs,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implement reading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purposed to evaluate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grams. For this purpose, it developed the evaluation tool for reading promotion programs and evaluated it.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results, the study identified the problem of the policies and programs and provided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m. In addition, it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ies for expanding the reading culture.

Keywords: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Reading policy,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gram, Reading program, Reading program evaluation, Policy evaluation

\* 본 연구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shoang@daelim.ac.kr) (제1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usseo@uos.ac.kr) (공동저자)

\*\*\*\* 책과사회연구소 소장(bookclub21@korea.com)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idisfeel@hanmail.net) (교신저자)

\*\*\*\*\*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과 사서(kes78@korea.kr)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6년 8월 19일 •최초심사: 2016년 8월 30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2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289-314,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28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독서는 개인의 지적 성장과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다(이순영 2011).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한 세계 각국에서는 독서를 국가경쟁력의 기반으로 간주하며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립을 위해 국가차원의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서를 통한 창의성과 상상력, 지식경쟁력이 국가경제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독서문화진흥법」과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의 제정,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이 그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006년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은 국가 차원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정책 추진의 근거라 할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후 정부는 동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위한 ‘기본계획’인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독서진흥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09~2013)’에 이어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국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사회적 독서 진흥기반 조성, 생활 속 독서문화정착, 책읽는 즐거움의 확산, 함께 하는 독서복지구현이라는 4대 추진전략 아래 21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정부 단위의 독서진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 하에 전국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해서 지자체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sup>1)</sup>

하지만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시스템 부재로 이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다. 독서문화진흥법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립·시행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는

1) 독서문화진흥계획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독서문화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독서문화진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10) 그러나 정작 중앙정부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독서문화진흥계획에 의거한 독서문화진흥사업 구성이 적절한지, 각 사업이 국가단위의 사업으로 적절한지, 그 성과는 어떠한지 등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성과 제고 및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중앙정부 단위로 전개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1)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2)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심층적 체계적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3) 이를 토대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체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1) 문헌조사를 통해 독서문화진흥사업 관련 현황조사와 평가모델 개발을 수행하였고, 2) 독서문화진흥사업 관계자 및 참여자와의 간담회에 의거한 심층 조사를 통해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 전문가회의를 통해 독서문화진흥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독서문화진흥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독서문화진흥사업 주관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에서 수행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Ⅱ. 독서문화진흥사업 현황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09~2013)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 수립에 따라 국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사회적 독서 진흥기반 조성, 생활 속 독서문화정책, 책읽는 즐거움의 확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3호)

산, 함께 하는 독서복지구현이라는 4대 추진전략 아래 21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정부 단위의 독서문화진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 하에 전국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해서 지자체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단위로 운영 중인 독서문화진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주관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총 15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2015년 현재 수행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은 14개이며, 이 중 10개 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독서대전 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과 독서대전 개최 도시와 공동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 생애 첫 책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민간단체인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아래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주관단체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이 대부분의 사업을 직접 추진·실행하고 있는 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의 사업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국민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총 예산은 2011년 1,822백만원, 2012년 3,518백만원, 2013년 3,197백만원, 2014년 3,867백만원, 2015년 5,851백만원으로 국민독서문화진흥사업의 중요성 증대와 더불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5년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5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5,851백만원으로 총 14건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5년 사업에서는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 <병영독서 활성화사업비>는 2,644백만원으로 2015년 전체 사업비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207백만원이다. 이 금액으로 14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소액다건(少額多件) 위주로 사업을 주관하며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평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도에 운영한 인문독서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전문독서교육과정사업, 독서대전, 책드림 콘서트, 국민독서문화확산사업, 교정시설 독서활동, 찾아가는독서활동지원, 책임어주는문화봉사단, 지역대표독서프로그램, 전국독서동아리 활동, 내 생애 첫 책(북스타트 사업), 병영독서활성화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이다. 이 중, 10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 생애 첫 책 사업>은 민간단체인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주관단체 역할을 맡고 있다. 2015년 사업인 독서진흥유공포상 운영과 독서실태조사수행사업(격년운영)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표 1〉 국민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 현황

순번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예산(단위:백만원)					2015 사업주관
				2015	2014	2013	2012	2011	
1	인문 독서 아카데미	도서관·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융합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일반 청소년	1,000	1,084	284	282	282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
2	전문 독서 교육과정	초·중등교사 직무연수/유치원· 어린이집교사 독서교육 연수	교사	54					진흥원
3	대한민국 독서대전	독서문화 시상식, 개막식, 독서진 흥 토론회, 책드림 콘서트, 전국독 서동아리축제, 지역대표 프로그램 소개, 저자와의 만남, 지역 독서동 아리 등 사업 연계 추진	일반 청소년	210	190	-	-	-	진흥원/ 지자체
4	책드림 콘서트	책의 날(4.23) 등 기념 책드림 콘 서트 개최	일반	95	199	200	361	407 <sup>2)</sup>	진흥원
5	국민독서 문화 확산	국민독서문화 확산 : 독서관련 공 모전 운영, 독서인운영	일반 청소년	84					
6	교정시설 독서활동	교정시설 및 청소년보호시설 수용 자, 보호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지원	재소자	37	37	35	65	65	진흥원
7	찾아가는 독서활동지원	소외계층 아동 및 자유학기제 도입 중학교 대상 독서프로그램 지원	어린이 청소년	223	200	-	80	80	진흥원
8	책읽어 주는 문화 봉사단	50대 이상 어르신에 문화소의시설 을 찾아가 책 읽어주기 활동 전개	어린이 노인	200	200	229	222	200	진흥원
9	지역 대표 독서 프로그램	지역문화와 여건을 고려한 각 지 역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업수 행 주관처를 공모를 통해 선정,	일반	180	170	340	-	-	진흥원
10	전국 독서 동아리 활동	전국 200여개 독서동아리 지원을 통해 독서동아리 활성화 도모	일반 청소년	400	400	385	-	-	진흥원
11	내 생애 첫 책 (북스타트사업)	영·유아 대상 책과 독서정보 제 공을 통해 생애초기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도모	영유아	400	500	500	300	300	국민독서 문화진흥회
12	병영 독서 활성화 사업	군 장병을 위한 독서교정(150명, 150부대) 및 병영도서관 도서 지원	장병	2,644	890	1,000	1,221	62	사랑의 책읽기 운동본부
13	독서진흥 유공포상 운영	매년 독서문화진흥 유공 독서문화 상 포상 운영	-	24	24	24	24	24	문화체육 관광부
14	독서실태 조사수행	격년 독서실태조사 수행	-	150	70	70	95	95	문화체육 관광부
15	기타	2012년 독서의 해 선포식 등	-				868	307	문화체육 관광부
계				5,851	3,867	3,197	3,518	1,822	

2) 2011~2012 참여형 독서활동전개 : 독서 나눔콘서트 및 독서열차·버스, 기타 : 독서의 해 전개 사업(독서의 해 선포식, 독서마당 책잔치) 및 독서환경 조성 업(多讀 多讀 독서문화토론 확산) 등

### Ⅲ.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

#### 1. 평가모델 개발

##### 가. 평가모델 개발 개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국가관련 기관에서 수행한 문화관련 사업 평가 연구들을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sup>3)</sup>에 대한 평가연구(2013)에서 활용한 평가체계를 검토하면, 이 연구에서는 문화사업에 대한 평가의 주요 부문으로 계획의 합리성, 집행의 타당성, 결과 및 성과로 구성하고 각 평가부문의 세부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표 2> 참고)

<표 2>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무지개다리 사업 평가체계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지표
계획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계획 및 예산의 합리적 설정
	사업내용의 적합성	- 세부프로그램의 지역특성 반영도 - 세부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집행의 타당성	집행의 적정성	- 컨설팅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인식 공감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집행의 효율성	-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 관리의 체계성 - 사업추진 과성상 문제해결 여부
결과 및 성과	사업의 효과성	- 계획된 목표달성도
	사업의 영향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사업역량 강화 - 사업의 지속성 기반 확대
	수혜자 만족 및 인식변화	- 이주민 만족도 - 이주민의 인식변화 - 선주민의 인식변화

임학순 외의 연구(2010)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0년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문

3) '무지개다리(Rainbow Bridge)'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으로 지역 공공문화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주민 풀뿌리 단체와 지역사회 간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 문화적 주체로서의 이주민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화예술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모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평가모델 개발에도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공해준다.

<표 3>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평가 체계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지표
계획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계획 및 예산의 합리적 설정
	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주요 이해관계 참여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합리성	- 성과목표/지표의 구체성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과의 인과성 -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집행의 타당성	집행의 적정성	- 사업추진 실태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 사업 추진 과정상 문제해결 여부
	집행의 효율성	-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여부 -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 - 사업 참여자간 네트워크 노력
	강사/단체의 역량강화 노력	- 강사/단체의 역량강화 노력
정책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 계획된 목표의 달성도
	교육 역량	- 예술강사/수혜기관/단체 역량 수준
	참여자 만족	- 강사/단체의 만족도 - 수혜기관 만족도 - 학습자 만족도
	참여자 영향	- 강사/단체의 영향 - 수혜기관의 영향 - 학습자의 영향
	파급효과	- 사회문화예술교육 환경 개선 효과

다음으로 김현주 외 연구(2007)에서는 여행바우처 시범사업 평가와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여행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다음의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여행바우처 시범사업 평가 체계

평가부문	평가항목
정책투입	- 정책목표설정적의 적합성 - 운영체계의 적합성 - 예산투입의 적정성 - 지원 대상의 적정성 - 지원 규모의 적정성
운영과정	- 수행체계의 효율성 - 업무의 전문성 - 수혜대상의 포괄성 - 수혜내용의 다양성 - 수요자 불만에 대한 대응성 - 사업 운영의 공정성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3호)

성과평가	- 국내관광 활성화	- 관광수요 확대(동반인원) - 관광수요 확대(수요창출) - 관광소비 촉진(여행경비) - 국내여행업 매출 증대 - 국내 여행업 고용 증대 - 국내 여행상품 개발 - 여행업계 만족도
	- 관광복지향상	- 이용자의 만족도
	- 지역균형발전	- 지역별 방문율

마지막으로, 이종열의 연구(2004)에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원형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다음의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5> 문화원형개발사업 평가 체계

평가부문	평가영역	평가지표
목표 및 계획수립 단계	목표설정의 적절성	- 목표설정을 위한 욕구분석의 적절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정부개입의 타당성) - 목표의 명확성(측정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 상위 목표 및 중장기전략과의 연계성 - 사업목표와 사업내용간의 연계성 - 실행계획(일정, 추진체계, 예산 등)의 적절성
집행과정	추진체계의 적정성	- 사업일정관리의 적절성 - 수행 인력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효과성	- 추진체계간의 역할분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원활성 -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여부 -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및 이의 적시성
	선정과정의 타당성	-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사업 선정의 타당성 - 심사체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성과평가	산출물	- 산출물의 목표달성도(효율성 평가)
	성과만족도	- 수혜자집단 만족도, 결과물 평가
	파급효과	- 산출물의 파급효과
	지속성 여부	- 사업의 지속가능성 판단

지금까지 제시된 관련 연구의 평가체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장 상위차원은 계획(정책투입), 집행, 성과 세 차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모델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체계의 상위차원을 수용하여 독서문화진흥 개별 사업을 계획, 집행, 성과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하위차원의 세부 평가 항목도 일차적으로 이들 연구의 평가항목 및 지표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의 평가체계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계획에서는 목표설정의 적합성, 내용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하위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집행에서는 관



〈표 6〉 평가모델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 내용
계획	사업 목표 수립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목표 관련 사업 목적의 명확성</li> <li>• 타 사업과의 차별성</li> <li>•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의 적절성</li> <li>• 전년도 사업평가 내용의 반영</li> </ul>
	사업 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li> <li>•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li>• 홍보 계획의 적절성</li> <li>•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의 적절성</li> <li>• 전년도 사업평가 내용의 반영</li> </ul>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작성 여부</li> <li>• 성과지표의 적절성</li> </ul>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협력체계</li> <li>• 주관단체의 역량</li> <li>• 선정 공모의 적절성</li> </ul>
집행	사업관리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중 사업 관리 체계 운영</li> <li>• 문제발생시 대처 등</li> </ul>
	계획 대비 사업 수행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 일정</li> <li>• 예산집행율</li> <li>• 계획 변경 시 근거 및 타당성</li> </ul>
	추진체계 운영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협력의 적절성</li> <li>• 주민참여 위한 노력 등</li> </ul>
성과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 성과 달성도</li> <li>• 질적 성과 달성도</li> </ul>
	만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관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수행여부</li> <li>• 만족도 조사 수행의 체계성</li> <li>• 만족 수준</li> </ul>
	대외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보도</li> <li>• SNS 확산</li> </ul>
	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작성의 체계성</li> <li>•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li> <li>• 자체 평가의 객관성</li> </ul>

리의 체계성, 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추진과정의 효과성 등을 하위 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영역에서는 계획된 목표의 달성도, 성과만족도, 파급효과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이들 항목들을 독서진흥사업 평가를 위한 하위항목 개발의 준거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독서진흥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독서진흥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2차례에 걸친 워크숍 및 이메일 의견 교환, 본 연구의 연구진간의 토론을 거쳐 항목명을 수정 및 보완하고, 필요한 새항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항목으로는 계획에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적 적절성 항목이 추가되었고, 성과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작성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평가모델이 확정되었다. <표 6>에

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별 평가지표와 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평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계획 영역에서는 사업 목표 수립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의 적절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이라는 4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집행의 영역에서는 사업관리의 체계성, 계획 대비 사업 수행 정도, 추진체계 운영의 적절성의 3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성과 영역에서는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만족도 평가, 대외적 확산, 결과보고서 작성의 4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 2. 평가 목적과 방법

### 가. 평가 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2015년도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성과 관리 및 정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준거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 결과는 향후 이 사업을 지속, 확대, 축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차년도 사업의 발전적 조정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나. 평가 방법

본 평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주관 기관에 독서문화진흥사업 자기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담당자들이 직접 서면평가를 수행하였고, 서면평가를 토대로 본연구진들이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심층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 추진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평가를 보완하였다. 평가의 결과는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의 5가지 등급을 구분하였다. 각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 등급

등급	수준 정의
우수	영역별 지표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영역별 지표에서 일부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영역별 지표에서 모두 평균적인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거나 일부 낮은 수준의 성과와 일부 높은 수준의 성과가 상쇄되고 있는 수준
미흡	영역별 지표에서 일부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낮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아주 미흡	영역별 지표에서 모두 낮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 3. 단위사업별 평가 결과

단위 사업별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독서문화진흥사업 종합 평가 결과

사업명	사업내용	평가영역		
		계획	집행	성과
인문독서아카데미	도서관·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융합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전국민 대상 독서교육 운영	양호	양호	양호
전문 독서교육과정	초·중등교사 직무연수 유치원·어린이집교사 직무연수	미흡	양호	양호
대한민국독서대전	독서문화 시상식, 대토론회, 책드림 콘서트, 독서동아리 축제, 지역대표 프로그램, 미디어 지원, 책읽어주는 봉사단 등 사업 연계 추진	미흡	양호	양호
책드림 콘서트	책의 날(4.23) 등 책드림 콘서트 개최	양호	우수	양호
국민독서문화 확산	독서관련 공모전 운영, 독서인운영	양호	우수	양호
교정시설 독서활동	교정시설 및 청소년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지원	우수	우수	우수
찾아가는 어린이 독서활동	소외계층 아동 및 자유학기제 도입 중학교 대상 독서프로그램 지원	우수	우수	우수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50대 이상 어르신에 문화소외시설을 찾아가 책읽어주기 활동 전개	우수	우수	우수
지역대표독서프로그램	지역문화와 여건을 고려한 각 지역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업수행 주관처를 공모를 통해 선정	우수	양호	양호
전국독서동아리활동지원	전국 200여개 독서동아리 지원을 통해 독서동아리 활성화 도모	우수	양호	우수
내 생애 첫 책	영·유아 대상 책과 독서정보 제공을 통해 생애초기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도모	우수	양호	양호
병영독서활성화사업	군 장병을 위한 독서코칭(150명, 150부대) 및 병영도서관 도서 지원	우수	양호	우수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책 목표에 맞게 사업 목적이 설정되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성과 평가의 결과 참여자들에게서 대체로 기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었다. 다만 보완되어야 할 점은 이 사업의 차별성이 좀 더 분명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독서동아리와의 연계나 파급 효과가 좀 더 분명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과지표에 있어서 인문독서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문독서교육과정 사업>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 독서교육 직무연수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나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담당하는 전국의 각 지역 교육연수원에서의 독서교육 연수와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이 정부사업으로서 갖는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독서대전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의 스케줄 상 제약이 크게 작용하여 사업 운영과 관리에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적 규모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사업 개최지 선정이 필요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이 미흡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참여형 독서활동 전개 사업인 <소통과 나눔 책드림 콘서트>와 <국민 독서문화 확산(공모전, 독서인, 방송콘텐츠 제작 등) 사업> 모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양호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책드림 콘서트 사업의 경우 세계 책의 날과 관련하여 사업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단일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책의 날 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돌려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독서문화 확산 사업의 경우 독서인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사업인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사업>,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 사업>,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지원 사업>의 경우, 모두 적정하게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되었으며, 파악된 범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세 사업 모두 성과지표를 수혜자수에 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성과지표를 추가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 경력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된 기관 및 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독서진흥 사업이 가지는 전형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변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종료 후의 성과 평가보다 컨설팅을 겸한 모니터링을 사업 과정 중에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었으며, 독서동아리 구성원들의 독서 생활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된 것으로 평가되나 이 사업이 지자체나 다른 단체에서 수행하는 독서동아리 지원사업과 차별화를 갖는 지점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생애 첫 책 지원 사업>은 수혜자에게 사업의 효과를 확실하고 즉각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을 통해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로 유사 사

업이 시작된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실이다. 물론 이 사업에서는 북스타트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지역독서네트워크회의, 선정도서를 활용한 책놀이 동영상 제작 배포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영유아 독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취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하나, 사실상 민간주도 북스타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유사목적사업인 <내 생애 첫 책 지원 사업>방향은 원점에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군부대 내 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당히 고급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력들을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병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사업 전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산 대비 사업의 수혜율이 과연 만족스러운 것인지, 사업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IV.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체계 및 개선방안

### 1. 독서문화진흥사업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 총 12개의 독서문화진흥사업별 수행 절차 및 수행 내역 분석, 사업 주관기관의 자기평가서 검토, 사업 주관기관 담당자 심층면접, 수혜자 그룹 FGI, 사업 평가,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현행(2015년 시행 기준) 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인문독서아카데미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은 소요 예산이 가장 큰 사업으로서, 전국 각지의 도서관과 문화원 등에서 지역 저자뿐 아니라 타 지역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강좌를 꾸릴 수 있는 예산 지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위주로 시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특히 도서관에서 호응이 높다.

사업 피지원 기관들은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중시한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현행 수준의 건별 예산 지원을 전제로 가급적 수혜 범위의 확대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며, 일회성 강연으로 끝나지 않고 도서관 서비스와의 연계(도서관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 특성과의 연계) 의무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 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	양 호	양 호	양 호	[사업 지원의 제한] 단년도 사업으로 도서관, 문화원 등 60개 기관을 선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확충으로) 수혜기관 확대</li> <li>• 민간 단체도 수행 기관에 포함</li> <li>• 자부담 추가(매칭) 사업계획 기관에 선정 시 평가 가산점 부여</li> <li>• (예산 부족 시) 기관별 인문강좌 등의 확산을 위한 수요자 부담 방식의 유료 강화 개설 유도</li> </ul>
				[축박한 사업 일정] 5월부터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이른 시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공모 공고 등을 조기에 실시하여 충분한 집행 일정 보장</li> </ul>
				[수혜 기관의 사업 연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연만이 아닌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으로 연계(장서 구입, 전시회, 권장 도서 목록에 반영, 동아리 지정 도서로 활용 등)</li> <li>• 사업 이후 수행기관 내 독서동아리 결성 및 활동으로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인문독서활동의 계속성을 유지</li> </ul>

나. 전문 독서교육 과정

초·중등 교사 직무연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각각 140명, 366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독서교육 관련 연수가 필요한 각급 학교 교사 수에 비해 교육 지원 체계나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각 지역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사 대상 독서교육 관련 연수과정과도 중복 사업의 여지가 있다.

현행 사업의 확대 및 개선 방안 모색과 함께, 전향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각급 학교 교사 대상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직무연수 커리큘럼으로 만들고 이를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표 10>과 같다.

<표 10> 전문 독서교육 과정 운영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 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전문 독서교육 과정 운영	미 흡	양 호	양 호	[사업 수혜 대상 확대] 2015년에 총 506명의 교사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수혜자 규모가 과소하므로 각 지역의 교육연수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적인 확대 필요</li> <li>• 독서문화진흥 유관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담당자 대상 독서교육 과정 유도 필요</li> </ul>
				[사업 주관 정부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주관과 시행을 교육부가 직접 시행하도록 교육부와 협의</li> </ul>

다. 독서대전

독서대전은 과거 ‘독서의 달’ 기념행사(유공자 표창) 등을 시민 참여형 행사로 확대해 2014년부터 전국 순회 개최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제1회(2014년) 개최 도시인 군포시와 달리, 제2회(2015년)의 인천광역시 행사는 국내 첫 ‘세계 책의 수도’(유네스코 지정) 개최 도시임을 고려해 개최 지원을 결정했으나 인천시의 능동적 추진력의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노출시켰다.

독서대전은 지역(기초지자체)에서 순회 개최하는 정부 행사이지만 관 주도의 특성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 행사라는 특성을 살리되, 독서대전 개최를 계기로 개최지의 독서문화진흥 인프라를 다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최 도시(기초지자체)의 2년 전 선정을 통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행사의 명칭·체계·형식과 프로그램을 정식화하고 전시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독서대전’이라는 대회 명칭이 어렵고 와 닿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므로 공모 등을 통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연중 독서행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부 주최 행사로서의 체계와 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진흥원과 시행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독서대전 개최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 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독서대전 개최	미 흡	양 호	양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지자체의 독서행사와 차별성 부재</li> <li>• 개최지 지역 언론 홍보에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지자체 및 독서관련 단체의 독서행사와의 내용면에서의 차별성 확보</li> <li>• 전국사업으로서 전국 단위의 홍보</li> <li>• 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인지도 강화</li> </ul>
				[도시 선정 시기, 조건] 당해년도, 조건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전 (독서대전에서) 미리 선정</li> <li>• 원칙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개최(광역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li> <li>• 사업계획, 지역협력, 네트워킹 등이 구체적으로 협약된 상태에서 선정(공모제안서에 명시)</li> </ul>
				[개최 형식 규정 등] 개막식 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 주요 프로그램(전국단위행사+지역단위 행사) 구성 비율 및 행사 내용과 형식, 폐막식 등 최소 규정을 이행하도록 함(국내 전국 단위 행사인 전국도서관대회, 국제행사 등 벤치마킹)</li> <li>• 시민들이 관람하는 수동적 행사에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li> <li>• 개최도시 독서문화인프라 강화 모색이 필요</li> <li>• 정부, 진흥원, 시행 지자체간의 협조 체계 구축 필요</li> </ul>
				[대회 명칭 개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등 통해 참신하고 친근한 대회 명칭으로 변경 추진</li> </ul>

라. 책드림 콘서트

이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이미 학교, 도서관 등에서 책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책의 날 행사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발렌타인 데이나 빼빼로 데이처럼 국민들 대다수가 책의 날을 인지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벤트의 성격 상 다수의 대중매체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언론사, 포털, 도서출판업계, 교육기관, 도서관, 시민 등 독서의 사회적 확산을 바라는 사회 각계 인사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세계 책의 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많은 시민들이 책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벤트는 이러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운영 중인 책드림콘서트는 서울 도심이나 세종 등이 아닌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공모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연 2회의 대규모 행사 추진이 아닌 소규모 다빈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2>과 같다.

<표 12> 소통과 나눔 책드림 콘서트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책드림 콘서트	양호	우수	양호	[개최 횟수] 연 2회	• 동일 예산으로 연 50회~100회 가능(대규모 행사가 아닌 소인원, 지방 연주자 활용 방식)
				[개최지] (지난 2년간) 세종, 독서대전 개최지(군포, 인천), 세계책의날 행사 개최지(서울)	• 희망 지역 공모제, 소외 지역 추천제 병행
				[운영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책의 날 책드림 이벤트가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춤.</li> <li>• 언론, 포털, 도서출판업계, 교육기관, 도서관 등의 세계 책의 날 네트워크 구성하여 책드림 활동 공유</li> <li>• 발렌타인 데이나 빼빼로 데이처럼 전 국민이 인지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가 되도록 기획 추진</li> </ul>

마. 국민 독서문화 확산(공모전, 독서인, 방송콘텐츠 제작 등)

국민 독서문화 확산 사업의 개선방안은 다음의 <표 13>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국내·외 독서 관련 각종 정보와 동향이 망라된 ‘독서 포털 사이트’가 시급히 필요하며, 영상 편집에 능숙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책 추천 UCC 및 북트레일러 부문



의 신설도 검토가 요구된다. 각종 계기별 추천도서를 연중 제공하는 부문별 ‘양서 큐레이션’ 기능도 확충되어야 한다.

<표 13> 국민 독서문화 확산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국민 독서 문화 확산	양호	우수	양호	[독서인] 단순 독서 관련 정보 위주 1개월 1회 뉴스레터	• 독서 포털 사이트로 전면 개편 • 관계자들의 허브 역할 하도록 콘텐츠 강화 및 이메일 뉴스레터 강화(주1회)
				[공모전] 독서사진 공모, 독서의 달 슬로건 공모	• 독서 권장 UCC, 북트레일러 공모 신설(청소년 대학생 대상)
				[신규 제안>]	•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한국)책의 날 (10월 11일) 등 각종 계기별 추천도서, 행사 기획

바.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이 사업의 개선방안은 <표 14>와 같다. 우선, 성인과 소년 수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61개 있지만, 현재 예산의 한계로 20곳에서만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기에 법무부 예산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체 교정시설에서 연 1회 이상 독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독서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대상별, 여건별 프로그램 개발을 바탕으로 예산 확충을 통해 실시 범위를 확장하고 체계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교도소도서관에서 수용자들이 필요한 책을 볼 수 있도록 최신 장서와 독서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다.

<표 14>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우수	우수	우수	[독서 프로그램 시행] 관련 시설의 1/3(총 61곳 중 20곳)에서 독서교육 프로그램 시행	• 교정시설 독서환경의 핵심은 독서강좌가 아닌 읽기환경의 보장과 장서 확충에 있으므로, 교도소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바탕으로 독서치유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 수용자 대상별 특화된 독서 프로그램 개발·적용 선행되어야 함
				[예산] 37백만원 [주무부처 관심도] 법무부의 교도소도서관 관심도 낮음	•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확대 예산 필요 • 법무부에 교화 자료 예산 증액 편성 요구 협의

궁극적으로 교정시설 대상 독서활동 지원 사업이 관행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연례 지원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교도소도서관 개선(장서 확충) 및 독서치유에 관심을 갖도록 협력 체계 강화와 관심 제고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

찾아가는 독서활동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은 <표 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청의 <소외계층 돌봄학교>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기하면서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조기 시행, 학교 모니터링 조사도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독서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기에는 사업목표 및 성격이 다르기에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하고 전국적인 수요가 있으므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시행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표 15>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찾아가는 독서활동 지원	우수	우수	우수	[사업 범위] 전국 40개 학교 [사업기간] 5월까지 공모, 학교 선정, 활동가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확대 필요</li> <li>•사업 기간의 조기 개시 필요(방학 기간 고려하면 하반기 사업으로 20회 돌봄교실수업 진행)</li> </ul>
				[돌봄교실 담당교사 모니터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주관처에서 모니터링 실시</li> </ul>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신설] 중학교 7개교 8개반에 신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학기제 관련 독서프로그램 시행 학교의 대폭 확대 필요</li> <li>•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독서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기에는 사업목표 및 성격이 다르기에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li> </ul>

아.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의 개선방안은 <표 16>과 같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의 자원활동 기회를 늘리고 많은 수요기관과 연계되도록 사업 확산 대책이 필요하다. 자원활동가들의 의욕과 자긍심을 키우고, 예를 들어 활동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등의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사업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6>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지원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우수	우수	우수	[사업 범위] 지역주관처 7곳×22곳×12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범위의 확대 필요(경기도의 경우 북부권이 전혀 없음)</li> <li>• 추가 방문할 곳 많이 있으나 제한</li> </ul>
				[운영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봉사단 발대식 개최(자공심 고취)</li> <li>• 활동가 카페 개설 운영(경험공유)</li> </ul>

자. 지역 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이 사업의 개선방안은 <표 17>과 같다. 구체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시행하는 개별 공공도서관 등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응모하고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표 프로그램’을 사전에 선발하여 우선순위로 추천하고, 중앙정부는 이 가운데 전국 단위로 우수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독서문화진흥의 주체로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내실화되고 풀뿌리 독서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의 지향성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표 17> 지역 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지역 대표 독서 프로그램 지원	우수	양호	우수	[시행 범위]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 주관처 선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확대</li> <li>• 광역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li> </ul>

차. 전국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독서동아리 육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사적 활동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개별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풀뿌리 독서동아리의 육성과 지역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예 :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지원) 강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동아리 확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서동아리 활동이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적 독서 거점인 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 정책과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전국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전국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우수	양호	우수	[지원 범위] 전국 200개 동아리에 80만원 지원	• 동아리 지원금의 차별화 필요(동아리 규모, 활동에 따라 차등)
				[도서관 연계 활동] 특별히 없음	• 도서관 연계 활동을 1회 이상 하도록 신청서 제출에 의무화
				[사업 개선 방향▶]	• 개별 동아리 지원보다는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강화 등 독서동아리 인프라 구축과 전국 확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변화 필요

카. 내 생애 첫 책 지원

기존의 북스타트(Book Start) 사업을 대체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 전반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존 북스타트사업의 미시행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선정된 29개 기초단체 중에는 정선, 군포, 정읍, 완주, 순천 등 기존 북스타트 실시 지역까지 포함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 북스타트 운동은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독서운동이자 영유아 독서사업이다. 국내 기초지자체의 63%(142개)가 이미 북스타트를 도입했다. 그간 민간단체(책읽는사회문화재단)가 10여 년 간 수행해온 북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북스타트 모방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민(民) 주도 독서운동과 관(官) 주도 독서운동이 상생하는 길이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9>과 같다.

<표 19> 내 생애 첫 책 지원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내 생애 첫 책 지원	우수	양호	우수	[사업 범위] 29개 기초지자체의 35개 협약 도서관 영유아/부모 독서프로그램 책 보따리 제공 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지원 (가이드북 제작·배포)	• 기존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모방한 프로그램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하던 민간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업 내용을 전면 개편하여 시행해야 함

타.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

군부대 독서코칭 활동(전문 강사 파견), 도서 기증, 명사 강연 등을 통해 병영내 독서활동 활성화와 군 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부대 대비 시행률이 낮으므로 수혜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대당 참여 인원을 5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현재의 실질 참여도 수준임), 시행 횟수를 4~5회 정도로(절반으로) 줄이되, 참여 부대 수를 300개로 하여 광역 단위 시행으로 강사 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서코칭 중심의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 자체로는 수혜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매년 바뀌는 병사들이 단 한 차례라도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독서 활동을 하는 등 실제적인 병영문화 개선과 독서활동 촉진의 계기가 되려면 병영도서관 인프라 확충 등 독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책으로서 병영독서 활성화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 전반에 걸쳐 부대 인근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민군(民軍) 유대 강화와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군 활용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사업명	평가결과			현행	개선방안
	계획	집행	성과		
병영독서 활성화	우수	양호	우수	[수혜 범위] 150개 부대×50명×7회 (시범부대10회) 독서코칭 및 도서 증정	• 확대가 필요하나 다른 사업 대비 예산이 많은 편으로, 효율적인 수혜 범위의 확대 필요
				[독서코칭 도서의 소유] 참여 병사에게 기증, 개인 소유	• 부대 반납 또는 수거 후 병영도서관에 기증 방법 등 모색
				[참여 부대] 부대 단위 실시	• 인접 부대와 통합 실시 등 블록화 시도 필요

2.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체계

이상으로 독서문화진흥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보다 중요한 것이 추진 시스템의 개선이다. 기존 독서문화진흥 사업들과 향후 추진될 사업들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체계 속에서 수행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독서문화진흥 정책 전체의 합목적성과 성과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서 이 절에서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1단계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독서문화진흥 허브 기관화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독서진흥팀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은 인재양성팀의 업무 지원을 통해 전형적인 소액다건(少額多件) 방식에 의해 10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을 직접 추진·실행하거나 관장하면서 행정 업무는 과다해진 반면, 독서정책 증점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의 실현과 전문화된 민간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서문화진흥사업의 개발, 유관 부처·기관·단체·사업간 연계, 수혜처 발굴, 조사연구, 독서 정보의 수집·전파 등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 조정을 해야 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개별 사업을 일일이 직간접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사업 분야의 특성과 수행 역량 등에 따라 민간단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육성하고, 사업 개발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는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나. 2단계 : 독서문화진흥 전담 기구 설치와 네트워크 확대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중추 수행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독서문화진흥사업 담당 인력은 현재 9명이다. 각종 과업의 직접 수행과 새로운 독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많지 않은 행정인력이다. 특히 진흥원의 출판기반조성본부에 속한 ‘독서진흥팀’은 총 6명으로, 그 비중이 기관 정원의 1/10에 그친다. 중앙정부의 독서문화진흥사업 등을 실행하는 중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긴 기간 동안 인력 편제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6년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및 201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기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개편) 이후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중요성이 배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력은 거의 확대되지 않았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층, 독서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독자층>이나 지역, 가정, 학교, 직장, 병영, 수용 시설 등 <사회 조직> 단위로 세분화된 다양한 독서정책 사업의 연구·개발과 실행·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기구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사업 시행 기관의 명칭으로 인해 독서문화진흥이 오로지 출판 진흥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그 대안으로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총괄 지원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재단>(가칭)의 신설[제1안]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편(가칭 <한국독서출판문화진흥원>으로 개칭)[제2안]을 고려하여 독서 관련 행정 및 사업 집행력의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에 기본 구상이 담겨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조직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출판진흥과의 연계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제2안을 기본으로 하되, 현행 팀 단위 직제(독서문화진흥 업무)를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업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2014년 9월 군포(독서대전)에서 결성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를 중앙의 독서정책과 지역의 능동적 추진력이 만나는 협력 채널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국 지자체가 가입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모델로 하여 기초 지자체장 및 실무자급 정례회의 개최, 교육·연수·워크숍 개최, 홈페이지 개설, 연차보고서 작성, 중앙정부 및 도서관·독서 단체와의 네트워킹, 정보교류와 독서정책 개발을 위한 책읽는도시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 독서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백원근 2015, 27)

#### 다. 3단계 : 중앙정부 직제 개편

독서문화진흥사업들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독서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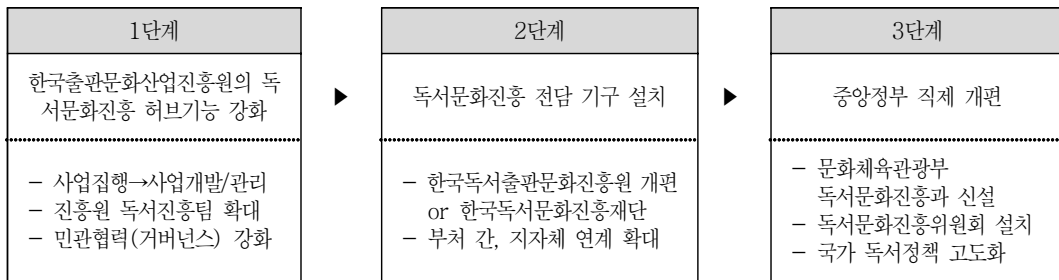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에 속한 '인문정신문화과'(총 11명)에서 독서정책 담당 실무자는 2명(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에 불과하다. 독서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특화된 행정 직제가 부재하고 소관 업무에 최소한의 담당 인력만 두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독서문화진흥 전담 조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독서문화진흥과를 설치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독서문화진흥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독서 관련 사업의 정부 부처 간 조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지원·연계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테면 본 연구에서 검토한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 규모와 부처 연계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한층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체계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부처 간 및 양 부처 내 유관사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의 주도적인 역할 확대가 요청된다.(한국출판연구소 2015) 또한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독서교육 과정), 법무부(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 여성가족부(영유아 독서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독서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의해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사업의 계획 등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sup>4)</sup>

4) 독서문화진흥법(2006년 제정법)의 근거 조항에 따라 설치되었던 독서진흥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9년 9월 6일 개정된 법에서 폐지되었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처럼 부분별하게 난립하던

이상에서 제시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독서문화진흥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제 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해 추진 중인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개별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수행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독서문화진흥사업이라는 전체 사업의 관점에서 일관된 평가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별 사업마다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개별 사업별 차이를 충분히 평가지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연구의 평가에서는 개별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나 향후 평가에서는 전체 독서진흥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사업 간의 우선순위와 비교우위를 정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단위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성과 측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일환으로 개별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병행하도록 일정 규모액 이상의 사업들에서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사업을 해서 몇 명이 참여했고 수혜자들의 평가가 어떻다는 사업별 실적 위주의 사후 평가가 아니라, 사업 시행 이전의 상황이나 조건을 사업 시행 이후와 비교 가능하도록 정량적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을 기한다는 취지였으나, 독서진흥위원회는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 지표를 정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사전에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제 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해 추진 중인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위주로 평가하였으나, 향후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독서문화진흥사업과 민간영역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중복사업 방지와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역할 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05.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사업 집행평가 : 애니메이션·게임산업을 중심으로』. 서울: 동연구원.
- 김현주. 2007. 『여행바우처 시범사업 평가와 운영체계 개선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백원근. 2015. 지역 독서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언론학회 출판과커뮤니케이션연구회 범국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퍼런스』. 2015년 9월 18일.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제1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2013)』.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컨설팅 및 평가 연구』. 서울: 동연구원.
- 이상준. 201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이순영. 2011. 읽기 연구의 최근동향과 과제. 『한국어문교육』, 10: 311-340.
- 이종열. 2004. 문화정책평가의 지표체계구성에 관한 연구-문화콘텐츠 문화원형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1): 129-150.
- 임학순. 2010.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컨설팅』.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모형 개발-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동연구원.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10.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시스템 적용 방안 연구』. 서울: 동연구원.
- 한국출판연구소 편. 2015. 『병영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Won Keun. 2015. *The Status and Promotion of Reading Policy in the Local Area. Conference for National Reading Culture Promotion*.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5.9.18.
- Lee, Jong Youl. 2004. "Constructing the Indicators for Cultural Policy Evalu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14(1): 129-150.
- Kim, Hyun Ju. 2007.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ravel Voucher Project.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2015. *The Study on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of the Arm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Lee, Sang Jun. 2012. Evaluation of Cultural Content Industry Support Program.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5. *Evaluation of Cultural Contents Support Industry : on the basis of animation and game industry*.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09. Evaluation Model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gram-on the Basis of Local Government.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10. *Application of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gram Evaluation System*.
-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st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2009~2013)*.
-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nd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2014~2018)*.
-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Consulting and Evaluation of 'Rainbow Bridge' Pilot Projects for the Expansion of Cultural Diversity*.
- Yim, Haksoon. 2010. *Consulting and Evaluation about Support Project for Culture & Arts Education of Community*. Korea Culture & Arts Education Agency.